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이철우 경북지사 4당 원내대표 만나 SK 하이닉스 유치 건의 구미 유치 당위성 역설, 수도권 공장충량제 준수 건의 지방분권 관련 법안 통과 설득, 지방 분권 현안 과제 건의	정책기획관	 사진별첨
② 경북청년 주경야독(晝耕夜讀) 일자리 모델 본격 구축 내달 28일까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대학(도내 1개 대학) 공모 2020년부터 3년 6학기제로 운영	일자리 청년정책관	
③ 경북도 사회적경제에 청년이 몰려든다 2.1:1 경쟁률 보여... 올해 사회적경제 참여기업 167곳 발표	사회적경제과	사진별첨
④ 경북 미래 수산업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 모집 2월 한 달간, 의욕있는 지역 청장년 어업인 발굴·육성	어업기술센터	
⑤ 경북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전년보다 0.3% 증가 전년 대비 113천㎡ 증가한 36,106천㎡	토지정보과	
⑥ 경북도, 지하시설물정보 전산화로 안전 대한민국 앞장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	토지정보과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 국가기관장 간담회’ 참석 - 이철우 도지사, ‘경북숲유치원협회 정기총회’ 참석 - 이철우 도지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정기총회’ 참석	대 변 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23(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작성자	기획관	정 성 현		
			팀 장	최 순 고	주무관	권 기 복
		연 락 처	054-880-2139			

이철우 경북지사, 4당 원내대표 만나 SK 하이닉스 유치 건의

- 구미 유치 당위성 역설,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건의 -
- 지방분권 관련 법안 통과 설득, 지방 분권 현안 과제 건의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이번에는 국회로 향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3일(수) 4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존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바로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구미가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5-10년 이상 반도체 산업이 뒤쳐질 수 있다며 구미의 장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반도체 관련 제반 산업 기반과 연구 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미 지역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최적지임을 설득했다.

또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원내대표들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이와 함께 주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회 지방분권특위 신설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 조속한 처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검토 및 자치조직권 확대 ▲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 국회 지방분권특별

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국회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현 정부 지방분권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은 66개의 법률개정을 통해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별 상임위에서 총 571개 사무 중 369개 사무 수용, 133개 사무 불수용, 69개 사무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어 국회차원의 대승적 결단으로 조속한 원안 통과를 건의했다.

또한 30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정부안) 안건은 주민참여 강화 등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일부 내용이 누락 되고 자치권 확대라는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7:23에서 70:30으로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이양일괄법안이 현재 해당 특위가 부재해 운영위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법률안 심의 권한이 부여된 상설특위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도 건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19. 1. 23(수)】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청년정책관			
		작 성 자	정책관	박 성 근		
			팀 장	엄 태 현	주무관	류 재 하
		연 락 처	054-880-2762			

경북청년 주경야독(晝耕夜讀) 일자리 모델 본격 구축

- 내달 28일까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대학(도내 1개 대학) 공모 -
 - 2020년부터 3년 6학기제로 운영 -

경상북도는 청년들의 진학 욕구와 조기 취업 목적을 달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경상북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대학’을 내달 2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취업시장에서는 여전히 교육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근로조건의 대우*를 받고 있어, 고졸·전문대졸 취업자들은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대학 진학 등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해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교육과 산업 현장과의 미스매치로 신입직원 재교육 비용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2017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발표, 2018. 3.22) 2016년 고졸의 시간당 임금은 11,589원이며, 고졸대비 중졸이하는 85.3%, 전문대졸 115.8%, 대졸 158.0%, 대학원졸은 246.0% 수준으로 나타남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중심의 기업 현장 교육을 결합해 3년 6학기제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대학 입학 후 조기에 취업을 확정하고, 기업에 재직할 상태에서 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청년 취업지원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운영방식은 기업과 대학이 선(先)채용을 전제로 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은 1학년은 전공기초능력과 현장실무 기본교육을, 2~3학년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해당직무 관련 심화교육을 이수하며 교육과정 수료 후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시점부터 2년간 해당 기업에서 의무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개요 〉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 분야(자동차 부품, IT, 전자, 기계 금속) 또는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 관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도내 1개 대학에 개설할 계획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중 참여 대학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은 경북도로부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받게 되며,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한다.

공모와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고시공고’ 란을 참조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일자리청년정책관실(☎ 054-880-276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는 ‘경북청년 주경야독 일자리 모델’의 일환으로 계약학과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고졸 및 전문대졸 재직자들의 학사학위 취득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2개 대학(금오공대 기계융합공학과, 대구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에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공모사업*에 지방비(도·경산시)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대학인 경일대에 유치해 올해부터 3개 학과를(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스마트푸드테크학과)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운영하는 등 일·학습 병행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 사업기간 2018 ~ 2023년, 전국 5개교 선정, 학교별 국비 116억원 정도 지원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지역 기업의 인재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한편,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인재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지역 대학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경상북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 2024년(6년간)

• 2019년 : 사업 준비기간 / 2020~2024년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 (개설 예정학과)

유형	선정규모	학위과정	정원	비고
조기취업형	1개 대학, 1개 학과	학사	20명 내외	

* 선정규모·정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도 지원사항) 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재학생 등록금 지원

• 등록금 부담 비율 : 도 50%, 대학 30%, 기업 10%, 학생 10%

■ 주요내용

○ (학생선발 및 운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회차 모집	사전준비 단계	신입생	→			
2회차 모집			신입생	→		
3회차 모집				신입생	→	
운영인원		20명	40명	60명	40명	20명

- (선발대상)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동등한 학력 인정자
- (학생선발) 대학은 기업이 제시한 인사기준을 반영하여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기업은 선발된 학생과 채용약정서 체결

○ (교육과정 운영) 3년 6학기제

- 대학은 기업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및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기술 및 R&D 기초능력 교육과정 개발·운영



- 1학년 : 참여 학생은 기업 요구 직무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집중교육을 통해 1년간 전공기초능력과 현장실무 기본교육 이수
- 2~3학년 : 학생은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대학에서 해당직무 관련 심화교육 및 직무역량 고도화
- 교육과정 수료後 : 학위 취득, 단 참여 학생은 졸업시점부터 2년간 해당 기업에서 의무근무 실시

■ 향후계획

- 2019. 1월 중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대학 모집 공고
- 2019. 3월 中 : 참여대학 선정
- 2019. 9월 ~ 2020. 2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설치·운영 준비
- 2020. 3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23(수)】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사회적경제과			
		작성 자	과 장	김 상 희		
			팀 장	차순애	주무관	김인걸
		연 락 처	054-880-2614			

경북도 사회적경제에 청년이 몰려든다

- 2.1:1 경쟁률 보여... 올해 사회적경제 참여기업 167곳 발표 -

경상북도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 1월 14일까지 실시한 ‘2019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참여 모집에 청년들과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신청이 쇄도했다.

지난 1월 11일까지 모집한 결과 청년은 730명으로 작년 신청인원의 7배에 달하며 올해 신규고용 예정인원 350명의 2배가 넘는 인원이다. 또한, 1월 14일 마감된 참여기업에는 177개 기업에서 527명의 고용을 신청했다.

경북도는 참여 기업의 빠른 선정과 사업진행을 위해 지난 15일 참여 기업 최종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고용현황, 매출액 등 기업성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해 167개 기업을 선정·발표했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선정된 경북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칭을 위해 23일(수)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효석홀)에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청년·기업 매칭을 위한 기업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개별 및 단체 면접을 위한 지원 프로세스, 고용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교육, 마케팅·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교육 등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앞으로 도는 빠른 시일내 청년들이 취업해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 매칭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참여청년의 지역이나 연령을 보면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 다양한 연령층의 청년이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청년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의 주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앞으로 청년과 기업이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종사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도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내 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 2년 지원(3년차 정규직 고용승계 또는 창업지원)
- 사 업 비 : 15,500백만원(국비 6,638, 도비 4,130, 시군비 3,392, 자부담 1,340)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550명 및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2018년 계속고용 200명, 신규고용 350명)
- 지원내용
 - 청년고용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지원(연 최대 2,160만원)
 -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연 최대 420만원)
 - 회계, 일반사무, 마케팅 등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 청년 멘토링 및 참여기업 컨설팅을 위한 전담매니저 운영
- 수행기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컨소시엄(대표 : 지역과소셜비즈)
 - 북부권 : (사)지역사회적경제허브센터
 - 동남권 : (협)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
 - 서남권 : 경상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모집결과

- 참여청년 : 730명 *모집기간 : '18.12.10 ~ '19.01.11
- 참여기업 : 177개 *모집기간 : '19.01.04 ~ '19.01.14

■ 추진계획

- 참여청년 대상 사업설명회 : '19. 1. 23.(수) 15시 / 경북대 글로벌프라자
- 참여기업 및 청년 매칭 : '19. 1. 24.(목) ~
- 최종 선정청년 기본교육 : '19. 2월말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실시 : '19. 3. 1.(금) ~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23(수)】	담당부서	환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센터			
		작성 자	소 장	김진규		
			팀 장	황성수	주무관	김시우
		연락처	054-240-0322			

경북 미래 수산업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 모집

- 2월 한 달간, 의욕있는 지역 청장년 어업인 발굴·육성 -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인력을 어촌으로 유입해 수산업이 활기를 되찾도록 하기 위해 2월 한달동안 ‘2019년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신청 받는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구분된다.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50세 미만인 자로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전업경영인은 만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후 3년이상 경영중인 자이며,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중인 자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이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영어기반조성자금(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을 선정 단계별로 최대 어업인후계자는 2억원, 전업경영인은 2억 5천만원, 선도우수경영인은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는다.

지원금은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수산물의 저장 및 가공시설 신축 등의 영어기반 조성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산업 정예 인력육성을 위해 어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주기적인 교육과 신속한 정보알림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경북도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지난 1981년부터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710명(어업인후계자 1,385명, 전업경영인 291명, 선도우수경영인 34명)의 수산업경영인을 발굴·육성했다.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환동해안 시대 수산업을 이끌어 갈 신규 수산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전문 기술교육으로 조속히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연도별 경북 수산업경영인 선정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 계	1,710	74,577	1,385	51,002	291	19,695	34	3,580
1981~2006	1,017	24,730	840	15,595	167	8,305	10	830
2007	34	775	27	635	7	140	-	-
2008	32	1,215	22	765	10	450	-	-
2009	45	1,060	34	560	5	-	6	500
2010	59	2,297	37	1,047	15	650	7	600
2011	45	3,080	33	1,730	9	1,050	3	300
2012	55	2,270	45	1,500	10	770	-	-
2013	54	2,790	41	1,850	12	840	1	100
2014	76	3,595	65	2,765	9	630	2	200
2015	73	5,810	60	4,510	13	1,300	-	-
2016	79	9,019	64	7,619	13	1,200	2	200
2017	68	6,396	59	4,566	8	1,580	1	250
2018	73	11,540	58	7,860	13	2,780	2	600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23(수)】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			
		작성 자	과 장	안 효 상		
			팀 장	김기섭	주무관	김정원
		연 락 처	054-880-4041			

경북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전년보다 0.3% 증가 **- 전년 대비 113천㎡ 증가한 36,106천㎡ -**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이 전년보다 113천㎡(0.3%) 증가한 36,106천㎡라고 밝혔다.

이는 경상북도 전체 면적(19,033km²)의 0.2% 수준이며, 공시지가로는 18,157억원에 해당한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1,580천㎡(59.8%)로 가장 많고 일본 5,525천㎡(15.3%), 중국 501천㎡(1.4%), 기타 8,500천㎡(23.5%) 등이다.

취득목적은 임야·농지가 21,650천㎡(60%), 공장용지 13,743천㎡(38.1%), 주거용지 483천㎡(1.3%), 상업용지 227천㎡(0.6%), 레저용지 3천㎡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 12,889천㎡(35.7%), 구미 5,742천㎡(15.9%), 안동 2,363천㎡(6.5%), 영천 2,358천㎡(6.5%), 경주 1,668천㎡(4.6%) 순이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단지, 기업유치 등에 토지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23(수)】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			
		작성자	과장	안효상		
			팀장	서보영	주무관	김재득
		연락처	054-880-4051			

경북도, 지하시설물정보 전산화로 안전 대한민국 앞장서

-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 -

경상북도는 7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송유)의 위치와 속성정보를 전산화하고 각종 도로 굴착공사에 활용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밝혔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1994)과 대구지하철(1호선, 1995)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경북도는 지난 1998년 포항시를 시작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10개시, 3개군 도시화지역은 이미 구축돼 도로점용·굴착공사 인·허가 등 각종 행정업무의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완료 예정인 군지역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지난해 사업비(14억원) 대비 56% 증가한 22억원을 확보해 9개군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마지막인 울릉군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매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중앙부처에 국비예산을 요구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는 등 안전 대한민국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아울러, 도로 아래 매설된 지하시설물을 직접 조사·탐사하는 작업 특성상 많은 고용인력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

도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첨단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상수도 누수피해 최소화, 과학적인 하수 관리 및 도로중복 굴착방지에 따른 시민 편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발생한 통신구 화재와 싱크홀, 도로굴착 등으로 발생하는 지하공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구축과 관리가 중요해졌다” 며

“지속적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 국가기관장 간담회’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 24일(목) 오전 7시30분 대구 호텔인터볼고에서 개최되는 ‘대구경북 국가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 이철우 도지사, ‘경북숲유치원협회 정기총회’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 24일(목) 오전 10시 구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개최되는 ‘경북숲유치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한다.

□ 이철우 도지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정기총회’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 24일(목) 오전 10시30분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열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